영어어문교육 *제31권* 3호 2025년 가을
https://doi.org/10.35828/etak.2025.31.3.105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의 줄표의 문법적·문체적 기능 비교 연구

이지혜
(공주대학교)

Lee, Jihye. (2025). A comparative study of the grammatical and stylistic functions of the English dash and the Korean julpyo.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31*(3), 105-122.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compare the grammatical and stylistic functions of the em dash in English and the julpyo(—) in Korean. The analysis focuses on academic research article (English) and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official guidelines on Korean punctuation (Korean) for grammatical functions and on literary essays (English) and originally composed examples reflecting the tone and structure of Korean columns (Korean) for stylistic functions. Three subcategories were examined for each function: insertion, parallelism, apposition and elaboration for grammatical function; emphasis, transition, and reader engagement for stylistic function. The findings reveal that despite their visual similarity, the dash and julpyo exhibit different functional patterns depending on the stylistic structure and discourse conventions of each language. The English dash is used to clarify logical relationship and assert authorial stance whereas the Korean julpyo primarily serves to guide the flow of discourse and reflect contextual or emotional nuances. These contrasts reflect broader syntactic, discourse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This study contributes to punctuation research by providing a comparative, function-based analysis grounded in authentic discourse data, extending beyond formal approaches.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inform both English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offering pedagogical insights into how learners can develop a more nuanced awareness of punctuation practices and their rhetorical effects.

[English em dash/Korean julpyo/grammatical functions/stylistic functions/comparative study, 영어의 대시/한국어의 줄표/문법적 기능/문체적기능/비교연구]

Ⅰ. 서론

문장부호는 언어 이해와 소통 방식을 형성하며 글을 통한 의사소통에 있어 기본적인 도구로 작용한다(Crystal, 2003). 문장부호는 메시지의 리듬, 어조, 명확성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구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문장부호의 부재나 오용은 의미의 왜곡과 혼란을 초래하여 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부호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필수적이다.

역사적으로 문장부호는 언어와 더불어 형성되어 왔으며 구전(oral) 전통의 억양이나 일시적 멈춤을 시각적으로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장부호는 점차 표준화되었고 각 언어 체계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Baron, 2001). 고대 저술과 구전 문화에서 비롯된 문장부호는 글의 조직화를 위해 도입되었고 억양이나 일시적 멈춤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부호는 체계적으로 기준을 갖게 되었으며 각 언어나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별적으로 발전하였다(Nunberg, 1990).

오늘날 문장부호는 지역적 차이를 보이며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는 문장부호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며 어조, 분위기, 사회적 단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Baron, 2001). 예를 들어 느낌표는 화자의 흥분이나 긴박함을 나타내는 반면 부호가 전혀 없는 문장은 무심하거나 지나치게 간결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현대 의사소통에서 문장부호의 융통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문장부호는 교육적으로 과소평가 되거나 간과되어 왔다. 잘못된 사용은 글의 전문성과 명료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에게 문장부호의 의미와 중요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도훈, 2010; Hyland, 2004). 특히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의 줄표(—)는 문법적, 문체적 기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 부호들에 관한 체계적 비교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김도훈, 2010). 문장부호가 사고의 흐름, 글의 분위기 그리고 서술자의 태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역시 부족하다. 실제 언어 사용 현장에서는 하이픈(-)과 대시(—)가 혼동되거나 줄표가 하이픈으로 잘못 대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국립국어원,2015). 예를 들어 학생 에세이에서 “The outcome-unexpected and dramatic-shifted the debate” 와 같이 하이픈이 대시 대신 사용되어 문장의 구조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를 넘어 대시가 가지는 삽입과 강조의 기능이 정확히 실현되지 못한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의 대시(—)[1]와 한국어의 줄표(—)에 관한 문법적, 문체

[1] 영어의 대시는 엠 대시(—), 엔 대시(–) 그리고 하이픈(-)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가운데 문장의 구조적 관계를 드러내거나 담화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능은 주로 엠 대시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한국어의 줄표와 기능적으로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영어의 대시는 엠 대시로 한정한다.

적 기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언어 간의 차이를 밝히고 실제 언어 사용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의 줄표는 어떠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2.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의 줄표는 어떠한 문체적 기능을 수행하며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 연구 질문은 문법적 차원과 문체적 차원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예문을 활용한 구체적 비교를 통하여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법적 기능은 문장의 구조적 해석과 직결되고 문체적 기능은 글의 표현 효과 및 독자 인식과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교 연구는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장부호 교육 및 실제 시용의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장부호의 언어학적 기능

영어에서 문장부호는 의미의 안내자로 기능하며 글의 통사적, 담화적 구조를 조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문장부호는 통사적 구조를 정의하고 구별하는 장치로 인식되었다(Busch, 2012). 문장부호는 단순한 시각적 기호 이상으로 문장의 의미 해석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법적 자원이다. Crystal(2003)은 문장부호를 “written equivalent of prosody”로 정의하며 음성 언어의 운율과 구조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Halliday와 Matthiessen(2013)은 문장부호를 언어의 기능적 체계 속에서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요소로 보면서 담화 구성과 텍스트 조직화에 있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장부호는 문법적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은유적, 수사적 기능도 수행한다. 문장이 실제로 발화될 때의 억양, 멈춤, 강조를 반영하기도 하며(Bush, 2021; Moore, 2016; Sun & Wang, 2018),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억양과 어조를 상상하게 한다. Nunberg(1990)는 문장부호를 언어학적으로 독립된 하위 체계로 분석하며 음운론이나 통사론의 원리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 규칙체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어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문법(partial grammar)을 제안하며 문장부호가 통사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해석을 제약하는 다양한 조건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문장부호의 수사적 기능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Long(1961)은 문장부호를 필

자의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며 이를 통해 단어, 구, 절의 삽입이나 생략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Hyland(2004)는 학문분야별 담화 특징을 분석하면서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단순한 문장 구조와 기본적인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반면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대시(—), 괄호(), 세미콜론(;)과 같은 복잡한 부호를 적극 활용하여 저자의 태도와 해석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Halliday(2013)는 문장부호와 같은 텍스트적 자원이 정보의 흐름과 논리적 연결을 조직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대시는 주제의 확장이나 부가적 정보의 삽입을 통해 텍스트 구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Hyland(2010)는 대시를 독자의 이해를 돕고 정보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상호작용적 메타담화장치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문장부호가 단순한 표면적 신호 체계가 아니라 의미 구성과 담화 조직에 핵심적인 자원임을 시사한다.

한국어에서도 줄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김도훈(2010)은 줄표가 정보 보충, 화제 전환, 강조 등 다양한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특성이 영어의 대시와 유사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장소원(1983)은 문장부호는 매우 특별한 형태소로서 다른 모든 언어적인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음소, 형태, 통사, 의미, 화용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특별한 언어적 실체로 규정하였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문장부호는 구어의 기능을 문자 언어에 구현하며 글의 논리적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도구로 기능한다.

2. 문장부호의 교육적 기능

문장부호는 언어학적 기능뿐 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vci(2006)는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문장부호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Karagul(2010) 역시 학생들의 문장부호 사용 능숙도를 조사한 결과 수업 활동 내에서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문장부호 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학습자의 글쓰기 정확도와 명료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

읽기 교육과 문장부호 교육의 연계성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 Abu-Ubaida 외(2017)는 나이지리아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 수업에서 효율적인 읽기 지도가 문장부호의 규칙학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문장부호 교육이 독해력 향상과 직결되며 문장부호가 읽기 능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문장부호 교육에 있어 모국어의 역할을 조명한 연구도 등장했다. Tsaure와 Sani(2024)는 언어 습득과 교육적 성취의 관계를 분석하며 영어 학습 과정에서 모국어가 학습자의 문장부호 사용 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이 연구는 문장부호 사용의 습관이 단순한 개인적 요인이 아닌

사회언어학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장부호의 형태와 종류, 그리고 그 명칭은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하다. 하지만 문장부호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며 그에 따른 기능과 용법, 문장부호의 사용 범위에 관한 의견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3. 문장부호 대시와 줄표의 연구 동향

영어에서 대시는 특히 삽입, 강조, 전환 등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적 표지이다. Truss(2004)는 대시를 감정적 흐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구두점이라고 설명하며 그 사용이 정서적 또는 비형식적 뉘앙스를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Hyland(2010)는 학문적 글쓰기에서의 대시 사용이 전공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며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텍스트의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로서 활용된다고 밝혔다.

한국어에서 줄표는 비교적 최근에 정착된 문장부호로 대화 인용, 강조, 보충 설명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줄표를 부연설명 또는 보충하는 내용을 문장 사이에 삽입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국립국어원, 2015). 이러한 규정은 줄표가 단순한 기호가 아닌 담화적 단절과 주제 전환의 경계를 나타내며 의미 해석에 중요한 표지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줄표의 구체적 용례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양명희(2002)는 줄표를 이음표의 하위 유형으로 정의하며 현행 규정에는 줄표의 띄어쓰기 원칙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교과서에서는 앞뒤를 띄어 쓰는 반면 신문에서는 편집상의 이유로 붙여 쓰는 경우가 많아 사용방식이 일관되지 않다. 특히 줄표는 부제 앞이나 붙임표 대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띄어쓰기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어 줄표가 음운적 강조 보다는 텍스트 구성의 논리적 구조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영어의 대시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영어와 한국어의 문장부호 체계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닌다. 대시와 줄표는 모두 삽입, 간조,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각 언어의 구조적 특성과 문화적 담화 관습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 용례와 기능적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 연구는 주로 각 언어 내부분석에 집중해 왔으며 두 언어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 줄표의 문법적 기능을 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문장부호의 대조 언어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의 줄표가 문법적, 문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밝히기 위해 각 언어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어자료는 학술 논문과 문학 에세이를 한국어에서는 국립국어원 웹페이지 해설자료와 시사 칼럼의 담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문장[2]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선정은 문장부호가 문법적 기능과 문체적 기능을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리 수행하는지 분석하기 위함이다.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의 줄표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 정성적 기능 분석(qualitative functional analysis)을 중심으로 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언어에서 기능 실현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서로 다른 장르의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어 텍스트는 학술 논문(문법적 기능 중심)과 문학 에세이(문체적 기능 중심)를, 한국어 텍스트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의 한글 맞춤법 (문법적 기능 중심)과 연구자가 재구성한 시사 칼럼(문체적 기능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의 줄표가 수행하는 기능을 문법적 기능과 문체적 기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였다.

첫째, 문법적 기능은 문장 내부의 구조적 관계를 명시하거나 성분 간의 의미적 연결을 드러내는 기능으로 정의한다. 대시와 줄표의 문법적 기능은 기존 연구의 범주를 토대로 분류하였으며 대표적으로 Halliday과 Matthiessen (2013)의 기능문법 체계와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2017)의 한글 맞춤법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삽입, 병치, 보충과 같이 문장의 구조적 구분 및 정보결속에 기여하는 기능을 문법적 범주로 규정하였다.

둘째, 문체적 기능은 필자가 담화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독자의 인식과 해석을 유도하는 표현적, 수사적 기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Hyland(2010)의 메타담화 구성요소와 김도훈(2010)의 문장부호 연구를 참고하여 강조, 전환, 독자의 인식 유도와 같은 담화적, 수사적 사용을 문체적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영어의 대시 중에서도 엠 대시(em dash)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2] 한국어 시사 칼럼의 경우 줄표가 사용된 원문을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실제 칼럼의 담화적 맥락과 문체적 특징을 반영해 재구성한 문장을 일부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자료 출처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장르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엔 대시(en dash)가 주로 수치나 범위와 같은 제한적 기능에 국한되고 하이픈(hyphen)은 전화번호 표기나 복합 명사 구성과 같은 기능적 사용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엠 대시는 삽입, 병치, 강조 그리고 전환 등 다양한 문법적, 문체적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 줄표와 직접적 비교가 가능한 가장 적절한 대상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자료를 선별하였다. 문법적 기능 분석에서는 영어 학술 논문과 저서 국립국어원의 문장부호 해설을 문체적 기능 분석에서는 영어 문학 에세이와 한국어 시사 칼럼을 대상으로 하였다.

Ⅵ. 영어 대시와 한국어 줄표의 문법적, 문체적 기능 분석

1. 문법적 기능 비교

본 절에서는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의 줄표가 문장 구조 내에서 수행하는 문법적 기능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문법적 기능이란 문장 내 요소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부가 정보를 삽입하고 병렬구조를 조직하는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문법적 분석 대상은 앞서 제시한 학술 논문과 국립국어원의 문장부호 해설로 제한하며 각 사례를 삽입, 병치, 보충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리, 정의하고 두 언어에서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즉, 대시와 줄표가 문장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적 연결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두 기호가 공유하는 문법적 기능과 상이한 조건을 동시에 밝혀 보고자 한다.

1) 삽입 (Insertion)

대시와 줄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빈번한 문법적 기능 중 하나는 삽입 기능이다. 삽입이란 문장의 기본 구조(주어-서술어-목적어 등) 사이에 부가적 정보를 넣는 방식으로 구문적 흐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보조 정보를 첨가하는 기능을 말한다(Halliday & Matthiessen, 2013). 이러한 삽입의 구조는 종종 괄호나 쉼표로도 나타내지만 대시나 줄표는 특히 정보의 중요도나 강조의 종도를 조절할 때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영어 텍스트에서는 대시가 삽입의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학술 논문이나 설명문에서 개념의 정의, 예외 조건 또는 예시 설명을 덧붙일 때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장은 대시를 통해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1) a. The students’ responses—most of which were thoughtful—revealed nuanced understanding of stylistic conventions.

b. These findings—although preliminary—suggest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language exposure and punctuation usage. (Hyland, 2004)

(1a)의 문장에서 대시는 주절의 의미를 잠시 끊고 관계 대명사절을 시용하여 선행 주어에 대한 보충설명을 삽입함으로써 정보의 계층화를 가능하게 한다. 쉼표를 사용할 경우 이보다 약한 강조가 되고 괄호가 사용될 경우 부가 정보가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반면, 대시는 중요하지만 보조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1b)의 문장 역시 부사절을 대시를 삽입하여 문장의 주 흐름을 일시 중단시키며 결과에 대한 한정적 조건을 덧붙인다. 이때의 대시 역시 쉼표보다 독자에게 필자의 더 강력한 의도를 전달하게 한다.

반면, 한국어 설명문이나 교과서 텍스트에서는 줄표가 삽입 기능을 수행할 때 문장의 중간 그리고 종결 표현 이후에도 등장하며 다음 문장을 도입하거나 부연 설명으로 연결하는 특성이 강하다.

(2) a. 그 신동은 네 살에—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벌써 시를 지었다.
b. 나는—사실 솔직히 말하자면—그 말이 별로 탐탁치 않아.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2017)

위 (2a)의 문장에서 줄표는‘네 살에’라는 사실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줄표로 둘러싸여 삽입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쉼표로도 가능하지만 줄표를 쓰면 강조 효과가 크다. 한국어의 담화구조에서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삽입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는 문법적 기능으로 이해 가능하다. (2b)의 문장의 경우 줄표를 통해 삽입된 강조구문으로 논리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심리나 말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는 대체 가능한 괄호와는 달리 시각적 역할도 수행한다.

2) 병치 (Parallelism)

병치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요소들을 나열하거나 연결할 때 형식적인 균형을 만들어 내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대시나 줄표가 문장 내에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문장부호는 병치를 시각적으로 분리하고 나열된 항목을 강조하거나 대조적으로 배치하는데 사용된다. 학술논문에서는 강조와 구조적 명료성을 위해 병치 구조에 자주 사용한다.

(3) a. The study highlights three critical areas—engagement, accessibility, and reflection—in designing writing instruction. (Hyland, 2004)

b. Students must develop three things—critical thinking, clarity in expression, and academic tone—to write effectively. (Swales, 1990)

위 (3a)의 문장에서 대시는 나열된 병치 항목들(engagement, accessibility, and reflection)을 선행 문장 요소와 시각적으로 구분하며, 강조의 효과를 준다. 이 역시 쉼표나 콜론보다는 더 강력한 분리감을 형성한다. (3b)의 문장도 병치된 세 가지 요소를 대시로 감싸며 쓰기 능력의 조건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영어에서 병치의 다른 표현으로는 'like, such as' 와 같은 전치사를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문장부호 대시를 사용한 병렬 구조가 문장의 명확성과 강조를 동시에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a. 어머님께 말했다가—아니 말씀드렸다가—꾸중만 들었다.
b. 이건 내 것이니까—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2017)

한국어의 줄표 사용에서 병치의 경우는 정정 또는 수정하거나 말하는 이가 표현을 바로잡을 때 사용한다. (4a)의 예문에서 '말했다가'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다가'로 바꿈으로써 격식을 바로잡고 있다. (4b)의 예문 역시 줄표로 표현을 둘러 쌀 경우 '내 것이니까'라는 표현을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로 수정, 정정하며 의미의 강조 효과를 주고 있다.

요약해 보면, 영어의 대시는 병치 항목의 강조 및 구조를 분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병렬 요소의 문장 내 강조, 절 사이를 구분한다. 대시의 사용 위치는 타동사 뒤 목적어 자리나 주제 강조를 위해 앞에 위치시키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의 줄표는 병치 항목에 대한 시각적 부각과 앞의 어휘의 수정, 바로잡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병치된 명사나 개념을 구문이나 구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줄표의 위치는 주어나 보어, 주제어 앞 또는 문장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보충 (Apposition, Elaboration)

보충의 기능은 문장부호 앞에 핵심 정보를 제시한 후 부연설명, 정의, 예시, 배경정보 등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대시와 줄표는 이러한 보충정보를 강조하거나 시각적으로 분리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한다. 보충의 기능은 문장 흐름의 중단과 재개, 핵심 정보의 재구성이라는 점에서 삽입의 기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삽입보다 중심 정보와의 연계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5) a. There is one crucial factor in student writing—audience awareness—that is often overlooked in classroom instruction. (Hyland, 2010)
b. The focus of this study—the role of punctuation in stylistic variation—has received limited attention in SLA research. (Swales, 1990)

(5a)의 예문에서 대시로 삽입된 ‘audience awareness’는 선행 명사구인 ‘one crucial factor’를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재 진술하며 문장의 정보 구조에서 보충 설명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학문적 글쓰기에서 개념의 명확화와 독자의 인지적 처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5b)의 예문에서 대시를 통해 ‘focus’를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구조로 연구의 핵심 논점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킨다. 대시는 정보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핵심 개념을 부각시켜 독자가 중심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하며 쉼표나 괄호보다 강조성과 집중도가 크다는 점에서 학술 담화에 적합한 문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6) a. 치열한 접전 끝에 우리 팀은—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말을 꺼내기도 싫지만—결국 지고 말았다.
b. 화산은 지각 내부의 마그마가 분출되어 생긴 지형이다. 분화구 주변에는 용암이 식으면서 형성된 암석층이 쌓이는데—그 모양은 대체로 원추형을 이룬다.(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2017)

(6a)의 구절의 ‘결국 지고 말았다’는 결과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충하고 있다. 보충설명이 줄표로 구획되어 있어 독자가 정보를 분리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다. (6b)의 문장은 추가적인 정보를 보충하지만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정보의 계열을 강조한다.

보충에 관한 역할을 요약해 보면 영어의 대시는 핵심 개념에 대한 명확화, 정의 그리고 보충의 기능을 한다. 그것은 독자의 주목을 유도하고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보충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대시의 위치는 주어, 목적어, 보어 뒤에 위치한다. 한국어의 줄표는 개념의 부연설명, 정의, 예시의 기능을 하며 독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용어를 부연설명하고 개념을 명료화 한다. 위치는 중심어 바로 뒤에서 설명 정보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

종합해보면 병치와 보충의 기능은 두 언어 모두 문장 구성의 핵심 전략으로 사용되지만 영어가 형식적 표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맥락과 의미적 추론에 더 크게 의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로 각 언어의 문법적 자율성과 담화 전통의 차이가 문장부호의 사용방식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 문체적 기능 비교

문장부호는 문장의 구조를 조직하는 문법적 기능 이외에도 담화의 흐름을 조절하고 독자의 해석을 유도하는 문체적 기능을 수행한다. Hyland(2010)의 메타담화 이론에 따르면 텍스트 내의 특정 표현은 독자와의 상호적용을 유도하고 정보를 구조화하기 위한 전략이며 이 중 문장부호는 메타담화적 자원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체적 기능의 분석에는 두 언어의 문장부호에서 수사적, 담화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문체적 기능을 강조, 전환 그리고 독자 인식 유도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의 연구가 제시한 기능적 특징을 반영함과 동시에 글쓰기 교육 및 독해 역량 강화에도 교육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대시와 줄표가 어떠한 맥락에서 강조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담화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독자의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비교함으로써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문체적 기능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다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영어 문학 에세이와 한국어의 시사 칼럼체 문장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한 예문을 통해 대시와 줄표가 담화 내에서 수행하는 문체적 기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강조 (Emphasis)

문장부호는 저자가 특정한 정보를 부각시키거나 정서적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활용하는 문체적 표식으로 기능한다. 특히, 대시와 줄표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에서 벗어난 구조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특정 정보에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영어 문학 에세이에서는 대시가 감정의 분출, 의미의 반전 또는 핵심 메시지의 도치와 같은 수사적 강조 전략으로 빈번히 사용된다. 아래의 발췌된 부분을 살펴보자.

(7) a. He had spent years trying to forget the night it all ended—the shouting, the broken glasses, the look in her eyes as she walked away—but memory has a cruel way of surviving, even when love does not. (Joan, 2005)
b. Time, she would later write, did not heal anything—it only taught you how to live around the world. (Joan, 2005)

(7a) 그리고 (7b)의 두 문자에서 대시를 통해 삽입된 구절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저자의 감정과 기억의 잔재를 강조하며 주제를 감정적으로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두 문장이 접속사나 따옴표 안의 실제 발화처럼 표현되었다면 독자들은 저자의 강력한 감정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7b)의 예문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관찰된다. 여기서 대시는 앞 문장의 일반화된 진술에 정서적 반전을 더

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실제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저자가 전달하려는 실제 메시지는 대시로 이어지는 문장이다.

두 예문 모두 대시는 정서적 깊이와 주체적 핵심을 강조하는 장치로 사용되었으며 서사적 흐름 속에서 저자의 목소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한국어 시사 칼럼에서도 줄표는 독자에게 특정 진술을 강조하거나 비판의 강도를 조절하는 수사적 장치로 활용된다. 특히, 사회적 담론을 다루는 칼럼체에서는 줄표를 통해 저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거나 앞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8) a. 정부는 '합리적 조정'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하다—아니, 오히려 혼란과 불신만 커지고 있다.
b. 그들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다—단 하루만에 약속은 부정되었고, 사과는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연구자 재구성)[3]

위의 (8a)의 예문에서 줄표는 문장 내 논리적 전환을 수반하며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8b)의 문장은 논리적 흐름보다 감정적 강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줄표는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자극하며 필자의 비판과 분노가 함축된 문장 후반부에 무게를 실어준다.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줄표가 때로는 감탄사나 평가적 표현이 없이도 문맥 자체로 정서를 전달하며 맥락적 함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영어의 대시는 감정적 전환이나 핵심 메시지의 부각을 위해 구조적으로 문장을 재배열하며 강조를 실현하는 반면, 한국어의 줄표는 발화의 의도와 맥락에 기반한 비판과 논평의 수사적 강화에 초점을 둔다. 두 언어 모두에서 문장부호는 단순한 구문상의 삽입이나 부연이 아니라 독자의 해석을 유도하고 담화의 핵심을 강화하기 위해 대시나 줄표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환 (Transition)

대시와 줄표는 텍스트 전개에 새로운 논지나 주제로의 전환을 매끄럽게 이끄는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전환의 기능은 'transition marker'로 분류되며(Hyland, 2004) 영어의 에세이와 한국어 칼럼에서 문장의 흐름을 전환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 본 예문은 실제 시사 칼럼의 담화적 맥락과 문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문장이다.

(9) a. “We tell ourselves in order to live—but sometimes those stories are lies.” (Joan, 1979)
b. “Lock up your libraries if you like—but there is no gate, no lock, no bolt that you can set upon the freedom of my mind.” (Virginia Woolf, 1929)

(9a)의 문장은 우리 인간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들을 구성한다는 일반적인 명제를 제시하다가 대시 이후에 전혀 다른 전환을 맞이한다. 이처럼 대시는 두 문장을 강하게 대비시키며 주제의 전환과 더불어 정서적 충격 효과를 유도한다. 이때 독자는 대시 이후 문장의 구조적 균형이 깨지고 갑작스럽게 ‘그러한 스토리들은 거짓일 수도 있다’ 라는 충격적인 진술에 집중하게 된다. (9b)의 문장은 여성의 지적 자유와 사회적 제약에 대한 강한 주장을 담고 있는 Virginia의 작품 중 일부이다. 대시가 삽입된 위치는 겉보기에는 논리 연결을 위한 전형적인 접속사의 위치 같지만 실제로는 전체 문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분기점이다. 앞 구절이 ‘외부 억압’이라는 조건을 설정했다면 대시 이후의 구절은 ‘내면의 자유’에 대한 선언으로 전환된다. 대시는 이 논리적, 정서적 전환의 흐름을 명확히 구획하면서 서술자의 목소리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

(10) a. 우리는 과거처럼 무한히 소비할 수 없다—지금이야 말로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b. 플랫폼 기업은 엄청난 데이터와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했지만—정부의 규제는 여전히 느리고 미흡하다.(연구자 재구성)[4]

(10a)의 예문에서의 줄표는 단순한 인과관계 이상의 전환을 실현한다. 줄표 바로 앞 문장이‘소비의 한계’라는 진술적 정보에만 머물렀다면 줄표 이후의 문장은‘행동촉구’라는 새로운 담화 목적을 제시한다. 이 줄표는 독자에게 정서적 긴장감을 주며 이어지는 주장에 집중하게 만드는 전환 장치로 작동한다. 정치적 발화내용을 담고 있는 이 문장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설득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줄표는 그러한 담화 전략의 시각적 도구인 것이다. (10b)의 문장은 두 개의 현실적 진술을 이어주는 전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줄표는‘성장의 결과’와‘정책의 대응 부족’사이에 단절을 부각시킨다. 만약 문장부호 없이 이어졌다면 두 내용은 단순한 병렬 구조로 이해되겠지만 줄표는 서술자의 논지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독자에게 현 상황의 불균형을 인식하게 만든다.

[4] 본 예문은 실제 시사 칼럼의 담화적 맥락과 문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문장이다.

3) 독자 인식 유도

대시와 줄표는 글쓴이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고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문학 에세이나 칼럼과 같은 주관적 글쓰기에서는 문장부호를 통해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효과와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체적 기능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태도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독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의 줄표가 독자와의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이들이 독자 인식의 유도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자.

(11) a. We are, all of us, always in the process of becoming—unfinished, in motion, vulnerable to change. (Maggie, 2015)
b. And then it hit me—I had never really listened to him. (Joan, 2005)

(11a)의 문장에서 대시는 'becoming'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해 추가적 설명을 덧붙임과 동시에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리듬과 호흡을 만든다. 쉼표로 문장을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정서적 거리감과 여운을 형성하고 독자가 문장 중간에서 생각을 멈추고 우리 모두가 변화의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점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처럼 대시는 저자의 내면적 사유와 독자의 인식을 연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11b)의 문장에서 대시는 감정의 전환점을 명확히 시각화 한다. 'hit me'와 뒤따르는 깨달음 사이의 정서를 극적으로 부각시킨다. 전형적인 문장의 연결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독자에게 깨달음의 정도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를 보인다. 글쓴이는 마치 당신도 나와 같은 충격을 느껴 보라는 듯 인식의 동화를 유도하고 감정의 동일시를 극대화한다. 그러므로 대시는 독자와 정서적인 거리감을 좁히는 도구로도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12) a. 그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었다.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으며—무엇보다도 한 시대의 증인이었다.
b.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도와 의식, 언어까지도 바뀌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다름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남을 것이다.(연구자 재구성)[5]

(12a)의 문장에서 줄표는 문장 전체의 감정적 밀도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5] 본 예문은 실제 시사 칼럼의 담화적 맥락과 문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문장이다.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으며’까지는 일반적인 병렬 구조이지만 줄표 뒤의‘무엇보다도 한 시대의 증인’이라는 표현은 그 인물에 대한 평가의 정점이자 독자가 받아들여야 할 핵심 메시지이다. 줄표는 이 메시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독자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해당 인물의 상징성을 되새기도록 유도한다. 이는 단순한 문장의 연결이 아니라 감정의 정점에 독자를 끌어들이는 장치로 기능한다. (12b)에서 사용된 줄표는 사실의 주장과 경고 사이의 경계 역할을 수행한다. 줄표 앞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줄표 뒤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없을 경우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감정적으로 연결한다. 줄표는 논리적 연결 이상의 기능을 하며 독자에게 “당신은 이 경고를 과연 무시할 수 있는가?”라는 정서적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도 이해 가능하다. 이는 독자가 스스로 문장에 개입하고 판단하게 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의 줄표를 문체적 기능의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각 언어의 글쓰기 관습과 담화전략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시는 글쓴이의 정서나 사고의 흐름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예상치 못한 전환이나 강조를 통해 독자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반면, 줄표는 문장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정서적 무게나 논리적 긴장감을 조율하는데 사용되고 독자의 인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의 줄표가 수행하는 문법적, 문체적 기능을 비교하여 두 언어간 문장부호 사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문장의 구조적 관계를 드러내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기능적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문법적 기능의 측면에서 영어의 대시는 삽입, 병치, 보충의 세 유형에서 모두 문법적 관계를 명시적으로 구획한다. 삽입의 경우 선행하는 명사를 부연설명하기 위해 삽입되며 이는 정보의 계층화를 이루게 된다. 문장의 주 흐름을 잠시 중단시키면서 결과에 대한 한정적 조건을 덧붙일 때 사용된다. 한국어의 줄표는 문장의 중간, 그리고 끝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음 문장을 도입하거나 부연설명을 위해 사용된다. 병치의 경우 두 언어에서 모두 유사한 요소를 나열하고 시각적으로 분리시킨다는 유사성이 있지만 대시는 강조 및 구조의 분리 기능을 수행하고 절 사이의 구획을 위해 사용되는 반면 줄표는 시각적 부각과 중심개념을 연결한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보충의 역할의 경우 두 언어에서 모두 보충하고자 하는 정보를 강조하거나 시각적으로 분리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에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대시의 경우 핵심 개

념의 명확화, 정의 그리고 보충의 기능을 하고 독자의 주목을 유도한다. 줄표는 독자에게 생소한 주제어의 부연 설명과 중심어 바로 뒤에 설명 정보가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의 대시는 문법적 관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구획하는 반면 한국어의 줄표는 의미적 유추와 담화 맥락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체적 기능을 비교하기 위해 강조, 전환, 독자의 인식 유도의 세 가지 항목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강조 유형에서 영어의 대시는 감정적 전환이나 중요한 메시지의 강조를 위해 구조적 재배열을 하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한국어의 줄표는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고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 전환에서의 대시는 두 문장사이에 강력한 대비를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되고 줄표 역시 독자에게 정서적인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줄표 이후에 제시되는 주장에 집중하게 하는 장치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자의 인식유도 항목에서는 대시는 맥락적 이해를 통해 독자와 글쓴이가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유도하는 반면 줄표는 해당 메시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상징성을 되새기게 하거나 경고, 설득의 역할까지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형식의 문장부호라 하더라도 언어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기능과 활용 양상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장부호는 단순한 표기 기호가 아니라 담화 구성과 의미 해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기존의 통사적, 형태적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기능적, 문체적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다만 분석 자료가 특정 장르에 한정되어 있고 예문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추후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 블로그, 구어체 대화 등 다양한 텍스트의 유형을 포함하여 문장부호의 쓰임을 보다 폭 넓게 탐색하고 그 결과로 언어 교육 및 글쓰기 지도 전략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2015). *문장부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7). *한국어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국립국어원.

김도훈. (2010). 영어와 한국어 문장부호의 비교연구-Colon(쌍점)과 Dash(줄표)를 중심으로, *영어어문학21, 23*(1), 147-176. https://doi.org/10.35771/engdoi.2010.23.1.007

장소원. (1983). 국어 구두점 문법 연구 서설. *관악어문연구, 8,* 387-403.

양명희. (2002). 현행 문장 부호의 사용과 실태. *새국어생활, 12(4),* 45-67.

Abu-Ubaida, S., Amina, U. U., Aishatu, A. B., & Abubakar, U. U. (2017). Exploring the teaching of reading skills in Nigerian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Research &*

Method in Education (IOSR-JRME), 2(7), 75-79. https://doi.org/10.9790/7388-0702027579

Avci, E. (2006*). Examining written expression flaws in 8th-grade students of primary education (Sample of Muğla)* [Unpublished master's thesis]. Ankara University.

Baron, N. S. (2001). Commas and canaries: The role of punctuation in speech and writing. *Language Sciences, 23*(1), 15-67. https://doi.org/10.1016/S0388-0001(00)00027-9

Busch, F. (2021). The interactional principle in digital punctuation. *Discourse, Context & Media. 40*. https://doi.org/10.1016/j.dcm.2021.100481

Cyrstal, D. (Ed.). (2018).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M. I. M. (Eds.). (2013).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431269

Hyland, K. (Ed.). (2004). *Disciplinary Discourses: Social interactions in academic writing*.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Hyland, K. (2010). Metadiscourse: Mapping interactions in academic writing. *Nordic Journal of English Studies*, *9*(S2), 125-143. https://doi.org/10.35360/njes.220

Joan, D. (Ed.). (1979). *The white album.* Simon & Schuster.

Joan, D. (Ed.). (2005). *The year of magical thinking,* Knopf.

Karagul, S. (2010*). Application level of the noted writing and its rules in Turkish lesson teaching programme of the elementary 6-8 class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kuz Eylül University.

Long, R. (Ed.). (1961). *The sentence and its parts.* University of Chicago.

Maggie, N. (Ed.). (2015). *The argonauts*. Graywolf Press.

Moore, N. (2016). What's the point? The role of punctuation in realising information structure in written English. *Functional Linguist, 3, 6.* https://doi.org/10.1186/s40 554- 016-0029-x

Nunberg, G. (1990). *The linguistics of punctuation.* (CSLI lecture notes No.18). CSLI Publication.

Sun, K., & Wang, R. (2018). Frequency distributions of punctuation marks in English: evidence from large-scale corpora. *English Today, 35*(4), 23-35. https://doi.org/10.1017/S0266078418000512

Swales, J. (1990). Discourses analysis in professional context.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11, 103-114. https://doi.org/10.1017/S0267190500001987

Tsaure, M. B., & Sani, A.U. (2024). Indigenous languages as medium of instruction in Nigerian primary schools: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Tasambo Journal of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3*(1), 32-39. https://doi.org/10.36349/tjllc.2024.v03i01.004

Truss, L. (Ed.). (2004). *Eats, shoots & leaves: The zero tolerance approach to punctuation.* Gotham Books.
Virginia, W. (Ed.). (1929). *A room of one's own.* Hogarth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이지혜(강사)
공주대학교 교양대학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세종한민족교육문화센터 301-1호
Email: yjh2488@naver.com

Received: July 28, 2025
Reviewed: September 1, 2025
Revised version received: September 23, 2025